

제16대 총장후보 결정

외부인사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

이항우 교수 · 한태식 교수

12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예정

제16대 총장후보로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항우(경찰행정학) 교수, 한태식(선학) 교수가 추천됐다. 지난 1일 열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지홍스님, 이하 총추위) 3차 회의에서는 위원 39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인 후보들의 소견발표와 질의가 진행됐다. 이어 총추위원 1인 3표 연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오영교, 이항우, 한태식 후보가 표차 없이 모두 24표씩을 얻어 자기 총장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최창술(선학) 교수는 18표를, 한진수(회계학) 교수는 21표를 얻었다. 발표는 김보환, 한태식, 오영교, 최창술, 한진수, 이항우 순으로 진행됐다.

한태식 후보는 △발전기금 4천억 마린 △불교계 · 재단 위상강화로 건학이념실현 △공역학부제 및 특성화 등 교육개혁과 구조조정 △일산병원 경영정상화 △구성원의 참여 확대를 주요 5개 정책목표로 발표했다.

오영교 후보는 "취임 후 108일 동안 학교 내외적 환경전환을 파악하고 발전의 비전을 만들겠다"는 108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정 · 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확보하고 있고, 불자이며 유쾌한 혁신의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임중 입각제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중도하차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항우 후보는 '동국비전 2010'을 내세우며 주요소견으로 △대의 기관 평가 10위권 진출 △교수연구능력 배가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저명교수 전략적 초빙 △비교우위있는 특성화 △CFO 대외부총장제 신설 등을 들었다.

한편 김보환(경찰행정학) 교수는 소견발표 중 첫 순서로 나서 돌연 사퇴했다. 김보환 교수는 "지금까지 대학의 직선제 선출을 반대해왔으나 국제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재단이 등한시했다고 생각해 후보에 지원했다"며 "같은 과 교수가 출마하며 여러 가지 비난을 들었고 종교문제까지 비방해 인간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사퇴사를 밝혔다.

3인의 총장후보를 선출, 추천함으로써 총추위는 자동해산되었고, 제16대 총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추위 회의의 후보 소견발표 및 선출 투 · 개표 현황을 인터넷 중계 하기로 예정했으나 외부업체의 장비 장애로 실시하지 못했다. 현재 중계 녹화영상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총학생회 정형주 · 최운철 조 당선

총여학생회 · 총대의원회 · 졸업준비위원회도 당선자 결정

제39대 총학생회 선거결과 단선으로 출마한 정형주 · 최운철 조가 총 82.9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 1만 1,980명 중 6,076명이 참여해 50.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는 본관 중앙당에서 1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됐으며 현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창우 · 전지공3, 이하 중선관위) 11명과 '스스페셜' 선거운동

본부 참관인 3명, 생자대 참관인 2명과, 우리 신문과 DUBS 등 학내 언론사에서 참관했다. 개표 순서는 △경영대 · 야간강조 △예술대 △불교대 △법대 △공대 △생자대 △이과대 △문과대 △사범대 △사과대 △정산대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20대 총여학생회 후보자 변승희(경영3), 제38대 총대의원회 후보자 정병주(야간국제통상3), 제19대 졸업준비위원회 후보자 김득주(통계3) 모두 50%이

상의 투표율과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한편 개표과정에서 졸업준비위원회 문과대 총 유권자 9명 중, 선거인명부에는 5명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10장의 찬성표가 나와 혼선을 빚기도 했다. 오차를 5%를 적용시키면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무산될 상황이었으나 "선거관리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후보를 낙선시킬 수 없다"는 '스스페셜' 선거운동본부 허소정(컴공2) 사무장의 이의제기로 중선관위

는 5% 오차를 적용시키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4개 단위 선거를 하나의 투표함으로 정했으며 이과대, 법대, 생자대, 공대는 중앙선거와 단과대 학생회 선거도 같이 진행했다. 투표용지를 분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소속과가 다른 단과대 건물에 있는 생자대 식품공학과와 이과대 생명공학과와 경우 선거인명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표를 분리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새벽 1시에 시작된 개표는 다음날 오전 9시에 끝났다.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의 선거 개표도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며 문과대, 법대, 사과대, 경영대는 각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표했다. 한편 정산대, 사범대의 경우 아직 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불교대와 야간강조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예술대 학생회 선거는 5일(내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최미혜 기자

lmsnara@dongguk.edu

<표1>중앙 · 단과대학 학생회정 선거 결과 (오차로 인해 총 투표인원과 투표결과 총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경선의 경우 △ 찬성=기호1번, △반대=기호2번)

총투표인원	투 표 결 과				당 선 자	
	찬성	반대	무효	정	부	
총학	6076(50.72%)	5041(82.97%)	906(14.91%)	142(2.34%)	정형주(통계4)	최운철(경영4)
총여	2922(55.61%)	2551(87.30%)	299(10.23%)	80(2.74%)	변승희(경영3)	
총대	111(56.63%)	93(83.78%)	12(10.81%)	3(2.70%)	정병주(야간국제통상3)	
졸준위	32(60.38%)	31(96.88%)	2(6.25%)	6(18.75%)	김득주(통계3)	
문과대	628(52.28%)	528(84.08%)	73(11.62%)	27(4.30%)	현성은(국문2)	
이과대	675(78.95%)	513(76.00%)	122(18.07%)	14(2.07%)	이기원(화학3)	라인호(생물2)
법과대	384(75.00%)	190(49.48%)	158(41.15%)	25(6.51%)	신동욱(법2)	성초록(법2)
사과대	893(53.12%)	491(54.98%)	393(44.00%)	9(1.00%)	정원철(사회2)	
경영대	1037(53.9%)	891(85.92%)	81(7.81%)	92(8.87%)	고기훈(국제통상2)	
생자대	407(75.79%)	367(90.17%)	41(10.07%)	1(0.25%)	안주현(식품자연경제3)	심선희(식품자연경제2)
공과대	1030(58.92%)	834(80.97%)	194(18.83%)	13(1.26%)	이순양(기계공3)	



"다시보는 백년의 만남" ... 지난달 28일 건학 100주년 기념 가을 시화전 '백년의 만남'이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시작되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 작품 소장을 원할 경우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개방이사 선임 정관 개정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해 4명 선임해야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우리학교도 개방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33차 이사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13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개방이사로 선임기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는 대표 10명으로 개방이사추천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대학평의회는 교원 4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은 1년으로 정했다. 대학평의회는 총장이 임명한다.

또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록도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했다.

제233차 이사회에는 재직이사 11인 중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사무처장 임용 △에 · 결산 자문위원회 폐지 등의 사항이 결의됐다.

제16대 총장, 총추위 도입 통해 처음 선출

절차 과정상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문제로 남아

우리학교는 이번 제16대 총장선출에서 후보 모집 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최종 후보자 3인을 선정,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교원, 직원, 대한불교조계종, 동문, 사회인사, 학부학생, 대학원생 대표위원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총추위는 지난 10월 출범해 3인의 최종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현재 그 역할을 모두 마친 상태.

총추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총장 후보에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근 'CEO형 총장'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학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 · 재계 등에서의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을 학내구성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내부인이 개혁을 시행할 경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다만, 검증된 외부 인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총추위 도입 이전까지 총장 선출은 전적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직선제 투표를 통해 선출된 2인의 후보 중에서 선

임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재단 교원의 권한이었다.

교수회의 직선제 투표에서 총추위의 간선제로 변화된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과거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거과정, 파벌조성 등의 부작용을 탈피할 수 있고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질적인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40명이라는 총추위 위원들의 수는 적고, 선정된 총추위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수는 "현 총추위의 교원 대표들 중에는 교수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단과대 학장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직원노조의 경우 총추위 참여를 거부했으나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총추위는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3-5인의 후보를 선출해 이사회에 추천하고, 최종적인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 올라

가는 최종 3인 후보 중 외부인사가 반드시 1인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 역시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교수회와 직원노조조합이 차기 총장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직선제 선거에서 서울, 경주캠퍼스의 투표율이 각각 91.7%, 89.5%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에도 법인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총추위를 통한 총장 선출에 계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한 고려대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지난 2002년 5월 총추위 제도도입에 있어 총추위 참여 교수 문제를 두고 학내 진통을 겪었다. 그 후 법인과 교수협의회, 교수회간에 소집된 '총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총장 선출제도를 협의한 끝에 제도를 정착시켰다.

새 총장 선출은 학교의 촉제라 할 수 있다. 4년 후 차차기 총장 선출에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한데 모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총장 선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ssundam@dongguk.edu

4개 제약회사 발전기금 전달 '동문교수 초청의 밤' 2일 개최

지난 23일 CJ, 중외제약, 영진약품, 제일약품이 발전기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는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의 발전기금으로 쓰여 질 것이다.

한편 대외협력처 주최로 '동문교수 초청의 밤'행사가 21일 오후 6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우리학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교수들이 참여한다.

1년간 100주년 주요 행사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보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박영석 동문

제5회 동국청우상 수상

산악인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이 제5회 동국청우상을 수상한다. 박 동문은 지난해 4월 30일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 고봉 14차 세계 최단기간 등정과 7대륙 최고봉 완등, 3극점 도전에 모두 성공하는 산악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세워 서구 중심의 탐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동국 청우상은 총동창회장과 4선 국회의원, 몬트리올 올림픽 선수단장을 지낸 정우 최재구 선생 추모사업회가 고인의 각 분야에 걸친 활약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소피텔엠베서더에서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

임태규 · 김효민 조 당선

일반대학원 제23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임태규(북한학과 석사 2학기) · 김효민(연극학과 석사 2학기) 조가 86.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단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지난달 29일 9시부터 30일 20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대학원 총 유권자 1,290명중 153명이 투표에 참여해 11.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133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태규 · 김효민 조는 △공공 연구실 원우 사용 △생활 연구 공간 확충 △각 건물별 무인 도서 반납함 설치 △각종 공연정보 제공 △강의실 공공시간표 부착 △박사과정 연구등록제 문제 해결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알림

이번 제1437호가 2006학년도 2학기 중앙호입니다. 보내주시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438호는 2007년 3월 5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동대학술상 · 동대문학상 시상



제44회 동대학술상과 제21회 동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정책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대학술상 장원에게는 100만원, 가작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동대문학상 소설과 희곡 · 시나리오 부문 장원에게는 100만원씩, 가작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시 부문 가작에게는 30만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학술상 인문과학부문 수상자는 △장원=성다움(철학4)의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 △가작=이예원(국교3)의 "'그 겨울은 따뜻했네'의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한 문학교육'이며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장원=신기훈(홍외4)의 '한일 NGO간 연대의 가능성 : 한일 간 역사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가작=전지환(정외3)의 '남

남갈등과 통일NGO의 역할 : 통일NGO의 남남갈등 해소방안을 중심으로'가 수상했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장원=조은영(생물4)의 '생물정보학과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특정조직 특이 유전자 발굴 : 뇌내피질 표지표시 기법을 이용하여 생쥐의 뇌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 탐색 및 분석'이 수상했으며 가작은 없다.

문학상은 시 부문 장원이 없고 △가작=이성근(인철3)의 '어떤 겨울'이, 소설부문은 △장원=임세화(문창4)의 '만두' △가작=이갑수(문창3)의 '국민 독서 증진 위원회'가 수상했다. 희곡 · 시나리오 부문에서는 △장원=김경화(문창3)의 '해녀가 있는 마을' △가작=이은보라(국문4)의 '마리아를 위하여'가 선정됐다.

▶관련 기사 7면

2007 학생자치기구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술한 논란 속 선거 마무리 ... 적법·민주적 중선관위 구성해야

제39대 총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선거기간 중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는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학내에는 리플렛과 대자보가 난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불신임, 도넛과 캔커피 제공, 미숙한 선거운영 등 어느 때보다 선거 진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중선관위 구성 논란

중선관위 불신임 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총대의원회 의장과 이과대, 사과대, 생자대, 공대, 야간강좌 대의원은 중선관위 구성을 위해 모여 선관위원의 의결권 문제로 7시간 이상 대립했다. '의결권을 주어 전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의 총대와 사과대 의장은 장시간 계속되는 의견대립에 회의적임을 피하고 이를 '논의사항에 대한 권한 포기'로 간주한 나머지 단위 의장들은 이창우(전자공3) 공대 의장을 위원장으로 중선관위를 구성했다.

이후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 회장에 중선관위원 위촉을 요구하고 각 단과대 선관위원에게도 의결권을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의견은 갈라진 후였다. 그 결과 중선관

위는 이·생·공·야의 대의원과 과 모집기간에 지원한 총 29인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총대 의장과 다수의 대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중선관위 불신임을 묻고 선거 정상화를 논의하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모두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도넛·캔커피 제공

중선관위는 투표기간 동안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내일과 학생복지위원회에 각각 도넛 5천 개와 캔커피 7천 개를 요구, 협찬받아 투표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단선으로 진행돼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후보자 당선여부로 이어지는데, 도넛과 캔커피로 투표율 유도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우롱하는 일로 대학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일로 여론의 파장이 컸으며 29일에는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로 일어났고, 이 시위는 다음날 '2007선거정상화를 위한 동국인 모임'에 의해 확대됐다.

정재현(정외4) 학복위장은 "학생 선거는 중요한 학생행사이기 때문에 강자 운영 등의 수익으로 단위 행사 등에 지원하던 학생복지기

금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숙한 운영 비판목소리 커

중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4개 중앙선거투표용지를 한 투표함에 모았다. 이는 투표를 위한 학생들의 동선을 즐기고 번거로움을 덜어 투표율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표시간이 지연됐고, 소속학과가 다른 단과대 건물에 있는 식품공학과와 생명공학과의 경우 단과대 선거 투표용지까지 함께 포함돼, 표를 분리하기 위해 일일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개표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난 30일에는 공대에서의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4시까지 2시간 단위 집계결과 7시까지의 3시간 동안 집계율의 격차가 큰 데서 비롯됐다. 이는 생자대 소속인 식품공학과를 포함한 선관위원의 착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창우 위원장은 "개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투표과정 중 선거조작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단과대에서의 시간별 선거 진행상황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인명부의 숫자보

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투표에 찍는 도장 색깔에도 사전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다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창우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단과대들과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심해 충분한 인력을 투표소에 배치할 수 없었고,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당선 공고 이후, 명창희(정보통신4) 총대 의장은 "총대 의장의 책임 박탈, 다른 단과대와의 논의 없이 이과대·공과대·생자대·야간강좌만 독단적으로 구성된 점, 선거진행 중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으나,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점 등 총대 의장으로서 현 중선관위에 대해 답답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모든 단위에서 당선자가 결정됐고 선거는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 진행에 대한 의혹들은 대화로써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갈등을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잡음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투명한 운영으로 성실히 임해 차후에 있어서도 철저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제39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학생들 아우를 수 있는 총학생회 만들어 갈 것”



총학생회 당선자 정정형주(통계4)·부 최윤철(경영4)

- 당선된 소감은.
=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선이 됐다. 선거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면서 투표율 저조 혹은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낙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당선돼 기쁘도 더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말했듯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할 생각이다.

- 2007학년도 등록금 문제는 학교측과 어떻게 논의할 생각인지.
= 일단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고 올해 안에 있을 등록금 원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원탁회의 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고 학교 측의 인상 근거가 타당한지 타당성에 대해 밝힐 것이다.

등록금 인상문제 협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여론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여론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
= 우선 새터와 등록금 인상 문제, 셔틀버스 운행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시작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낙산학사 보수도 다음 여름방학 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알아볼 것이다. 다음 학기 이전에 실현돼야 할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학기중에 이뤄져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이번 선거와 관련한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열돼있었던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현전무대

트렌드

○...“김동국” “화장실 갔습니다”
출석을 부를 때 지각이나 결석한 학생들을 대리출석 하는 대신 “화장실 갔다”, “복사하러 갔다”, “사람함에 갔다”고 대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문제보다는 지성인이라는 이름의 대학생들이 출석을 이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는지.

이에 한 교수 왈, “부르면 이유 있는 이름이며, 다시 부르면 대답 없는 이름이여”

할로우맨

○...우리학교에는 여백의 미를 아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중앙도서관 독서토론에 참가하기로 한 학생들이 무단으로 빠져 빈자리로 진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빈자리를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착순 마감인 만큼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의 기회도 빼앗는 상황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선착순에 실패한 학생 왈, “내가 개명이라도 해서 들어가 (!)”

당연한 판박이

○...쟁자의 어머니도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씩 이사를 다녔건만.

학생들의 대입 눈물담안이 판박이라며 사고력 부족을 지적하기 이전에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규제도 확실화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머릿속을 생각해봤는 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바람 걸 바라세요(!)”

동취(銅臭)

○...그 교사는 돈이 궁하고 그 학교는 양심이 궁하다는데.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장관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해 무리를 빚고 있다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묻어두려고만 했다고.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잘잘못을 밝혀야 하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이에 그 학교학생 왈,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각 학년별 면대면 심층 전공 강좌 개설

2007학년도 1학기부터 ... 실질적 맞춤형 강의 기대

교무처(처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는 Freshman Seminar, Junior Seminar, Mentor Program을 신설해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한다.

이는 현재 지도교수와와의 단순면담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전공강좌 중 현장경험 등의 실질적 맞춤형 강의로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 Freshman Seminar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을 높여 대학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 각 강좌의 수강제한 인원은 20명이며 1학점 P/F제로 우

리학교의 전임교원이 강의를 개설을 희망할 때 교수 당 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강좌별 주제는 교수가 대학생활, 전공, 진로개발, 학습능력 배양 등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신청서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약 40개의 강좌를 개설 할 예정이다.

▲ Junior Seminar는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방문, 견학,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강의의 형태로 학생들이 최신학문 및 사회동향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편성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수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독창적 연구와 그에 대한 참여로 학문적 관심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 강좌의 수강인원은 20명이며, 1학점 P/F제로 진행된다.

▲ Mentor Program은 현장 및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회전문인사를 멘토교수로 임명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토론과 현장방문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이에 대해 교무기획팀 김상유 직원은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교수와의 면대면 지도, 현장

중심의 강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생활에 필요한 소양, 진로 설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인원은 12명으로 1학점 P/F제로 약 30개의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단과대학 교육과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계, 연구소, 공공기관, 학회 등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장, 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해 7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별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1회 이상 자문을 구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 동향에 따라 각 전공강의들을 적극적으로 영어강의로 개정하고, 2007년도 신입생부터는 일정과목 이상의 영어강의 이수율 의무화 할 예정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교직 복수전공인원 대폭 축소

올해 입학·복학자부터 적용

교육부의 지침 사항에 따라 사범대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와 교직복수전공 인원이 변경된다. 교직복수는 사범대학생과 비사범대의 교직설치 학과에서 교직이수에 선발된 학생이 교직관련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항에 따라 복수전공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사범대학에서 학과별로 정원의 100%를 뽑던 것을 입학정원의 50%로 줄이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는 학과별로 정원의 100~200%였던 기존 인원이 입학정원의 10%로 크게 줄었다. 적용대상자는 올해 사범대학 입학자와 더불어 일정과목 이상의 영어강의 이수율 의무화 할 예정이다.

전공결정 신청 15일 부터

올해 입학·복학자부터 적용

2007학년도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전공결정 신청대상은 2006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과 1학년 2학기과정을 수료한 2007학년도 1학기 복학생이다.

복수전공 신청 19일 부터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복수전공 신청 또한 진행된다. 재학생은 전공결정 및 복수전공 신청 모두 학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에서 가능하며 복학생은 전공·복수전공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제능계 복수전공 신청자의 경우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26일까지 성적확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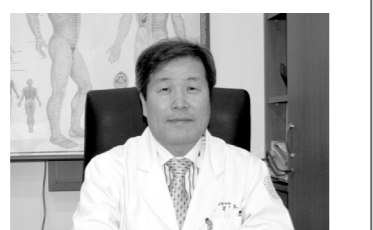
세차례 성적 이메일 발송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 강운호 원장을 만나 “병원 활성화로 학교와 긍정적 관계 되길”

지난해 8월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개원한 동국대 하나로 한의원은 우리학교 한의과 대학과 (주)농협유통이 산학 협력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진료는 경주한방병원장과 분당한방병원장을 역임한 강운호(한의학)교수가 맡고 있다. 동국인에 대해 가득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강 교수를 만났다.

-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의 특징은.
=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의 특성상 탕전은 전산처방전을 이용해 분당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며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다만 침, 간단한 물리치료는 이곳에서 행해지고, 분당한방병원과 동일한 질 좋은 국산약재만을 사용해서 한약을 조제한다. 하나로 병원을 활성화시키고, 농협 측의 학교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를 향상시켜 농협과의 관계가 대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의원을 이용하면 동국인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 기본적으로 동국법인 산하 의료원은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교수, 직원, 재학생 등 동



국인들에게 동국가족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이는 간편혜택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하나로 한의원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학교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봉사이고 그와 부합되는 사업이 바로 의료봉사이며,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수익은 교육과 동국인들을 위해 재투자된다. 직업자체가 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점이 보람 있다.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을 통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 말한 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임하겠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도넛과 투표 사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라는 취지로 투표자에게 도넛과 캔커피를 제공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선관위는 “단선이기 때문에 투표 독려가 필요했다”는 입장이고, 한편에서는 “참정권을 농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분분했다.

동악로

선거놀이

지난호 우리 신문에서는 선거기간을 맞아 특집으로 중앙·단과대 입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후보자들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같은 이유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입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공약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

수의 입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뿔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반복하는 등 중·고등학교 방장선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응했다. 실제로 일부 입후보자들은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건 당선되고나면...”이라고 답을 흐리기도 했다. “공약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얼무리는 입후보자들이 많았다.

또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인 ‘人-special’과 함께한 단위의 공약들은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과 거의 흡사했다. 각 단과대의 특성에 맞는 공약을 찾아 내세워야

하지만 총학의 공약에 묻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사과대의 한 학생은 “처음 기초2번의 공약을 보았을 때 총학의 공약과 같아서 헛갈렸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약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미 학교 측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내세운 것이다. 학교의 한 직원은 “건물 증축과 같은 부분은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생자치구에 대한 무관심이 입후보자들의 이러한 자세에 일조했다. 선거자체에 무관심하다 보니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따져보거나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됐다. 그로 인해 입후보자 역시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에 소홀해 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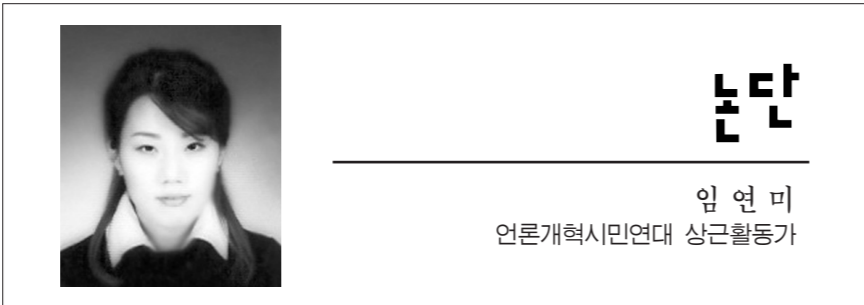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평가를 쉽게 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이제는 대학사회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대표할 학생회장을 뽑는데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학생 대표자라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황색저널리즘의 문제점과 대안

‘엘로 키드’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다

동국대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결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색 저널리즘에 대해 논하기 전, 황색 저널리즘의 정확한 용어를 짚어볼까 한다. 황색 저널리즘의 정확하고 온전한 이해를 위해 그 어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존 최고 권위의 언론상인 풀리처상의 주인공인 조셉 풀리처가 있다.



논단

임 언 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근활동가

‘엘로 키드’ 경쟁으로 선정주의 심화

1889년 조셉 풀리처의 ‘뉴욕 월드’에 연재된 ‘엘로 키드’ 만화시리즈가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경쟁자인 ‘모닝 저널’의 윌리엄 허스트는 ‘엘로 키드’의 스타프를 빼내 또 다른 ‘엘로 키드’를 만들어 연재했다. 그 결과 동시에 두 잡지가 황색의 웃을 입을 중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로 키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누가 더 자극적이고 흥미 있는 기사를 발굴해 내는가. 범죄와 추문에 끌릴 하고 사진과 삽화로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해 독자들을 자극하는가.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두 잡지는 과도한 선정주의로 흘러갔고 이후 언론의 지나친 선정주의를 일컬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문왕’, ‘현대 신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풀리처의 생각은 간단하다. 신

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영예의 풀리처상을 만들었지만 ‘황색 저널리즘’의 불명예스러운 유산 또한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풀리처상과 황색 저널리즘의 태생이 같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레 언론 상업주의 세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야 한다는 언론인 스스로의 자각과 속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선정주의는 ‘상업주의’라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굳어졌다.

현재 언론 선정주의의 실태

언론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는 사회 미풍양속의 파괴 및 풍기문란 조장, 프라이버시의 침해, 신문의 품위 저하를 일으키는 원흉이란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지만 비단 스포츠신문 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대중신문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에 있어서는 제목이나 사진의 비중이 커졌고 기자들은 한 가지 이슈가 생겨나면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보도전쟁을 펼치고 독자의 입맛에 맞는 기사 발굴에만 열을 올리고 판매상에 있어서는 경품 제공, 무가지 제공 등의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단 시간의 노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조회수를 올려야 하는 인터넷 온라인 뉴스들이 수용자의 눈을 끌기 위해 보다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불필요한 사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선정적인 거리들을 파헤치고, 추문을 뒤지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서둘러 보도하면서 ‘일단 눈에 띄고 보기’식의 경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야흐로 19세기 말 이후 황색 저널리즘의 최고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음식 맛은 형편없고 화려한 간

판으로 승부하는 음식점의 미래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용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결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뉴스의 갈 길은 한 곳이다.

수용자들의 비판적 시선 필요

수용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다. 피디수첩의 황우석 보도는 당시 사회적 여론 흐름과 상반되어 방송 초반 많은 비판을 감당해야 했지만 끝내 ‘진실을 파헤친 보도’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며 소신 있는 진실 보도의 승리를 보여 주었다. 저들은 신문 판매부수와 수익에 목이 마를지 몰라도 언제나 수용자들은 진정한 진실에 목이 마르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어딜 가도 엘로 키드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수용자들이 보다 비판적이고 성숙한 시선만 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디수첩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줄 것이란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론관이 필요하다. 바른 언론이 없이는 바른 정책도 바른 사회도 없다. 그대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공간부족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건물증축 추진 통한 해결 모색 ... 서울시와 협의 필요

이번 제39대 총학생회 선거공약으로 ‘동국관, 문화관, 중앙도서관, 정보문화관 증축’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학교의 공간부족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간부족문제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온 사항으로 우리학교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 발전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증축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남산 최고고도 지구 높이 제한’으로 인해 현재 필요한 공간만큼의 증축은 힘든 실정이다.

‘남산 최고고도 지구 높이 제한’은 남산의 자연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우리학교를 비롯한 남산주변지역의 최고고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6월 이 제한규정이 완화돼 3층 12m→4층 16m, 5층 18m→7층 28m로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제한완화는 우리 학교가 처해 있는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 내에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최근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위한 교육공간이 따로 분리돼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연구실 역시 부족해 연구실 한 방을 2인 1실 체제로 쓰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어 학교 측은 고심 중이다.

학교 측은 서울시에 동국관, 학술문화관, 중앙도서관, 정보문화관 증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국관 증축의 경우 남산고도 제한규정에 맞지 않아 증축이 허가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학술문화관, 정보문화관, 중앙도서관 증축신청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관계자는 “학술문화관 증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수연구실 20여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증축이 허가된다면 교수연구실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상가와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어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여유부지가 없다는 것도 공간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총 토지규모에 대한 건

물의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 폐율이 우리학교는 30%밖에 되지 않아 주변상업부지 등에 비해 건폐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학교의 공간확보 방안으로는 건폐율을 높여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최고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이 있지만 두 방안 모두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심익섭(행정학) 기획처장은 “우선 현재 신청한 심의가 통과하는 대로 1개층 증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의 논의를 거쳐 건물 증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산고도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한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재 기자

yyoonjae@dongguk.edu

사설

새로운 100년에 대처하는 자세

12월이 시작돼 올 한해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어느 해보다도 건학100주년의 해였던 올해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크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1년 동안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개교기념일이 있는 5월에는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동문 및 학내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동창회와 재단 및 학교간의 화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념적 행사를 개회함으로써 학교이미지 상승과 구성원 화합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채워나가기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추진과정에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를 살펴보자라도 총추위 구성에 관한 갈등과 이번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전 등은 아직까지도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00주년의 궁정적인 면을 담고 가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내구성원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올해를 기념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100주년의 역사와 시간들은 이제 기록에 담이두고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다시 새 출발을 준비할 때이다. 100주년을 넘어서는 다음 해에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돼 우리학교의 새로운 이미지와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떤 후보가 차기총장으로 선출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우리 학교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전 구성원을 아우르는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100주년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될 때서는 안된다. 새로운 차기총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발전상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화합과 관심이 중요하다. 구성원의 화합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학100주년을 넘어서는 2007년부터 그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다른후보, 한소리



동국 새백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차기총장을 기대합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겸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강지혜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6학년도 2학기 학생 강의평가 시행 안내

- 취지**
 - 강의의 질적 향상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 교육업적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기간** : 2006년 12월 1일 (금) ~ 12월 25일 (월)
- 시행대상 교과목** : 2006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
- 응답자격** : 2006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 강의평가 방법**
 - 1단계 : 학교 홈페이지에서 서울캠퍼스 선택 후 로그인
 - 2단계 : ID 및 Password 입력
 - 3단계 :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강의평가 메뉴 선택
 - 4단계 : 2006. 2학기 강의평가 실시
 - 대상과목은 인터넷상에 확인
 - 본인 수강신청 내역에 따라, 대상과목이 없을 수도 있음.
- 기타**
 - 가. 응답 학생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나, 본인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본교 입시일정으로 인해 2006학년도 2학기 성적정정기간이 단축되어 학사지원실에서는 강의평가 학생에 한해 해당 과목 성적을 미리 메일로 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강의평가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다. 아울러 이번 학기에도 강의평가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서 해당 학기 수강과목의 성적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2007-1학기 재입학 안내

2007-1학기 재입학 신청과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신청 기간/장소** : 2006. 12. 5(화) - 12. 7(목) /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 재입학 대상자** (* 징계제외대상생과 재입학후성적경고대상생은 재입학 불가)
 - 가.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재적생
 - 나. 미등록 재적생
 - 다. 성적경고누적 재적생 (2005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
 - 라. 자퇴생
- 재입학 가능 인원수** (* 학년 구분 없음)
 - 가. 비사범계학과 중 가능인원 : 정원내학생 140명, 정원외학생 34명
 - 나. 사범계학과(정원내학생) : 수학교육과 2명, 가정교육과 3명, 체육교육과 1명
- 제출서류**
 - 가. 재입학 신청서 1부 (* 학교홈페이지-서울-학사/생활-양식함-학적-No4 서식)
 - 나. 학업이수계획서 1부 (* 학교홈페이지-서울-학사/생활-양식함-학적-No5 서식)
 - 다. 학적부 1부,
 - 라.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심사일** : 2006. 12. 12(화) - 12. 15(금) 기간 중 대학별 자체 시행
- 재입학 결과 발표** : 2006. 12. 29(금)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 등록 기간/장소** : 2007. 2. 12(월) - 14(수) / 재입학, 조은은행
- 유의사항**
 - 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록금 미납)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 무효 처리)
 - 나. 재입학 학기(2007-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 다.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 사항은 연속하여 적용
 - 라. 성적경고누적재적 재입학생이 재입학 후 성적경고를 1회 더 받으면 재입학 후 성적 경고 제정처리되며 더 이상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마. 2005년 8월 31일 이후 성적경고누적재적생은 재입학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바. 징계처분과 재입학후성적경고에 의한 재적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
- 문의** :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학사지원실

교무처

2006-겨울학기 동국참사람 봉사단 모집 (사회봉사 수강신청)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수강대상	재학생(2007년 2월 졸업대상자는 신청 불가)
수강신청 및 평가기간	- 2006. 12. 11(월) 10:00 ~ 12. 12(화) 24:00 (신청은 마감) - 사회봉사 수강신청 후 증도에 포기할 경우 봉사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신청바랍니다(수강신청 변경, 취소 불가)
수강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로그인)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이수학점	- 1학년(Pass 또는 Fail로 평가) - 2006학년도 부터 Fail은 평점평균에 포함 -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 (동국참사람 봉사단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만 학점 인정) - 재학기간 중 최대 2학점까지 이수 가능(분기별 1학점 신청 가능)
학점 인정	- 성적 인정 : 2006-겨울 계절학기 성적 인정 - 학점 인정 : 33시간 이상 봉사 활동(분교 예비교육 3시간 포함)
봉사활동 기간	2006년 12월 22일 ~ 2007년 2월 19일까지(개인별 봉사 일정은 기관 담당자와 협의)
봉사활동 방법	- 홈페이지 공지 : 2006년 12월 8일 예정 - 봉사 기관 OT 또는 기관 담당자와 협의 한 후 해당 봉사 내용 시행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 불참시 봉사학점 인정 불가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실천) : 참가자봉사단 홈페이지 > 교과목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학교 주관 오리엔테이션	나. 예비교육 장소 : 중강당 다. 세부 교육내용 : 특강, 사례발표, 영상교육 라. 유의사항 - 학교 예비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최초 봉사활동 수강신청 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함(단, 재학기간 중 1회만 이수하면 됨)
활동기관 오리엔테이션	- 각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실시(일자는 추후 공지) - 기관 OT에서 개인별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배정하오니 반드시 참석바람
결과보고서(봉사소감문)	- 기관의 교보련 및 맞도는 동국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 신청 기관 홈페이지 참고 - 봉사 종료 후 4시간 이내 작성하여 동국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에 게재바람 - 학교홈페이지 > 학사생활(생활센터) > 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 > 교과목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유의사항(성적평가)	- 예비교육 불참자, 봉사활동 포기자, 봉사활동보고서 미제출자는 학점 인정 불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기록부에 Fail로 평가 가.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 불참자(기본 예비교육 이수자는 해당 없음) 나. 학교 예비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사회봉사기관에서 활동을 안한 경우 다. 사회봉사 수강신청 후 봉사활동 중도 포기자 라. 사회봉사 대상기관 평가 결과 'F' 처리자 2. 평가 기준(봉사활동 태도) : ①책임성 ②정실성 ③친화성 ④성취도 -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기준에 봉사시간 인정 - 사회봉사 장학금 및 해외봉사단 선발시 우선 추천 - 우수봉사자 포상, 후원 수여시 우선 추천 - 해외봉사/근로장학(연수)취급시 우선 추천 -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특전	

동국참사람봉사단 02-2260-3049



흥기삼 총장 4년 평가와 과제

행정분야

효율적·민주적 행정시스템 고민

슬림화·전문화·분권화 원칙 조직 개편 ... 신인사제도 도입

2003년 이래 4년간 학교를 이끌어 가기에 앞서 흥 총장은 행정시스템과 관련해 몇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1인 결정권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자율적, 민주적 행정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고, 부총장에게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흥 총장은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교육 강화의 큰 틀 안에서 슬림화·전문화·분권화가 조직개편의 커다란 흐름이었다. 이 방향을 기반으로 지난 4년간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자.

교육 강화 및 전문화

지난해 2월 신설된 교양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부속교육·연구기관과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기본 노선인 교육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양교육원과 국제교육원은 학부과정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했다. 교양교육원은 특성화가 잘 이루어진 반면 국제교육원은 현재 충분한 인력배치가 어려워 내년에 인력 보강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원 소속에서 확대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신규교수·조교 연구, 교수법, 학생지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팀과 교무기획팀이 신설되어 평가지원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교무기획팀은 기존의 학사지원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선택권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부속교육·연구기관으로 문화학술원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학부에 유사한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현재 대학원 협동 과정 개설과 학부 연계전공을 준비 중이다.

부서간 구조조정 시행

기능이 유사한 경우 부서·조직간 통

폐합이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업무와 학문이 유사한 6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 간에 통합행정실이 구축된 점도 커다란 변화이다.

이로 인해 지원기관을 단일화해서 학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행정직원 수를 절감시켜 불필요한 보조 숫자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교무처에 속해있던 학생선발실이 입학처의 입학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 1처 1실체제가 되어 상시홍보와 전형의 다양화가 가능해졌다. 기획처의 인사관리팀은 동일 처 내에서 채용·승진·재임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교무처 교원인사팀으로 변경되었다.

권력의 분권화 실현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송석구 전 총장 당시 총장직속조직으로 있었던 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홍보실이 권력 분권화의 원칙하에 부총장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총장 중심의 자율행정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총장은 주요업무만 총괄하고 대외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홍보실은 별도로 존재하다가 발전기금과 학교홍보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서 대외협력실 내로 이동하였다.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조교인명권이나 일부 장학금에 한해 단과대학장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한 점도 각 기관별 분권화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호칭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격상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조직개편 전 부문에 걸쳐 슬림화, 분권

화, 전문화를 추진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각종 결재 및 집행 과정이 여전히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흥 총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동 진급이 아닌 능력이 서열을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 취지는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업무환경이나 분위기가 경직돼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업무 제안의 장애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직원 신인사제도 도입

인사개혁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직원 신인사제도'이다. 98년 LG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과부제에서 벗어나 팀제 체제를 이어오다가, 팀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크게 인사평가제도를 개혁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신규채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면평가, 면담평가, 집단토론 면접이 도입되었고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교육학점제가 실시되었다. 특히 집단토론면접은 항목별 평가가 가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격이 강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에 비해 선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곧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있는 전산화 평가과정 역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할 예정이다.

인사개혁을 위한 과정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연구분야

연구실적 향상 위한 제도 추진

업적 평가제 시행 및 인센티브 강화 ... 연구의식 고취

흥기삼 총장은 취임 후부터 연구 분야의 실적과 연구원의 주도적 연구역할을 높이기 위해 연구 인센티브제도 강화와 연구업적평가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러한 연구 환경에 대한 개혁이 연구 활성화 및 논문 실적 증가 부분에서 가시적 효과를 가져왔다.

연구업적평가 시행

연구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은 일부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인일함을 일깨우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시행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각 분야별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학문분야에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 당시 교수회 측의 반발을 불러와 갈등이 발생해 평가기준이 문제시되기도 했다.

연구업적평가 시행에 대해 문과대의 한 교수는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교수들의 안일함을 일깨워 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구활성화 및 실적 증가

흥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에 들어가 2003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가지급제 시행, 2004년 연구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적용하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교수들의 등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했던 점은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교내·외 연구비 수혜현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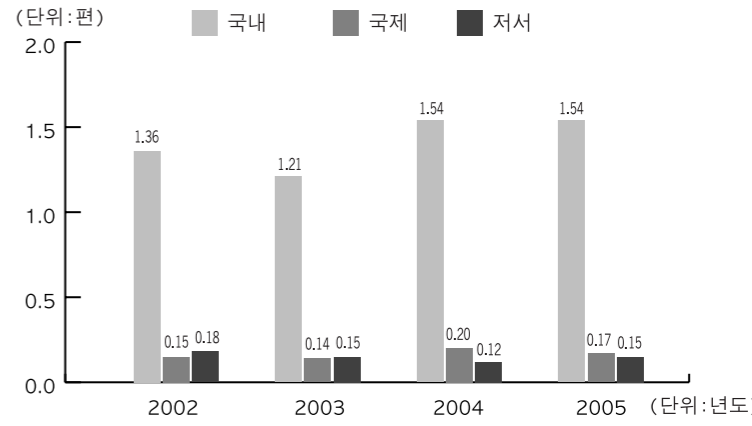
증가는 연구업적평가 시행, 인센티브 강화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 1인당 논문실적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년간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현황에서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것은 흥 총장 취임 초기부터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평가업적을 강조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연구 분야에 대한 양적 평가와 더불어 학문별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통해 특수성을 살린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구성원들에 대한 사전의 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하며, 이와 함께 평가업적을 개정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산학협력단 출범

산학협력단은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지만 출범 초기부터 예산



교수 1인당 연구실적

차기총장 과제

기금조성으로 충분한 재정마련 필요

전 구성원 의견수렴으로 화합 유도해야

차기총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외부발전 기금의 조성을 일순위로 꼽았다.

지난달 29일부터 3일 동안 우리학교 각 단과대 학장·학과장,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간접 조사를 통해 차기 총장 과제에 대해(교수 53명, 직원 30명 응답) 질문을 한 결과이다.

우리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공간문제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활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외부자금의 모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져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수 측은 외부자금 모금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개선도 큰 과제로 제시했다.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교수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원들의 입장과 교수들의 입장과 비슷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개혁'에 대한 시각이다. 교수들은 변화는 필요하나 무리한 개혁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교직원들은 개혁을 학교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장은 등록금 인상문제와 복지환경 개선에도 크게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식당 등에 무기명 의견조사 메모판을 설치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납득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학생 식당이나 각 단과대 건물의 복지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 행정분야 =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조직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무리한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분야 = 교직원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을 주요 과제로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교원을 초빙하고 커리큘럼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공간부족을 겪고 있는 교육환경을 정상화 시키고, 아울러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을 유치해 국제교류 분야의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 연구분야 =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구성원 화합 =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할 때 일부 독단적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차기 총장이 연계해서 이끌어 가야 할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틀과 구성원간의 감동 조정이다. 법과대의 한 관계자는 "MBA와 로스쿨 유치 사업 등 거시적인 인품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MBA추진에 따라 교원총원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과 학술관을 증축하기로 계획했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또한 연계사업의 일환인 캠퍼스 마스터플랜 중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건립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현재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점사업이나 연계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갈등과 맹목적인 특성화 사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송이기자 thispaper@dongguk.edu

발전기금

외부자금 유치 성과 아쉬움 남아

100주년 홍보로 기부금 늘어 ... 적극적인 유치 필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학교에 모아진 발전기금의 액수는 약 155억원으로 연도 별로 살펴보면 취임 직후인 2003년 36억원, 2004년 2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처럼 우리학교에 발전기금 액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발전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산불교병원의 개원을 꼽을 수 있다. 일산불교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건립기금으로 들어오던 발전기금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100주년 기념 신공학관 추진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이 늦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또한 총동창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도 있다. 총동창회 지도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단합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런 상황은 100주년을 맞아 가까스로 개선되었다. 지난해에 100주년을 맞는 고려대 교우회가 40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한 사실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학교와 동문사회가 화합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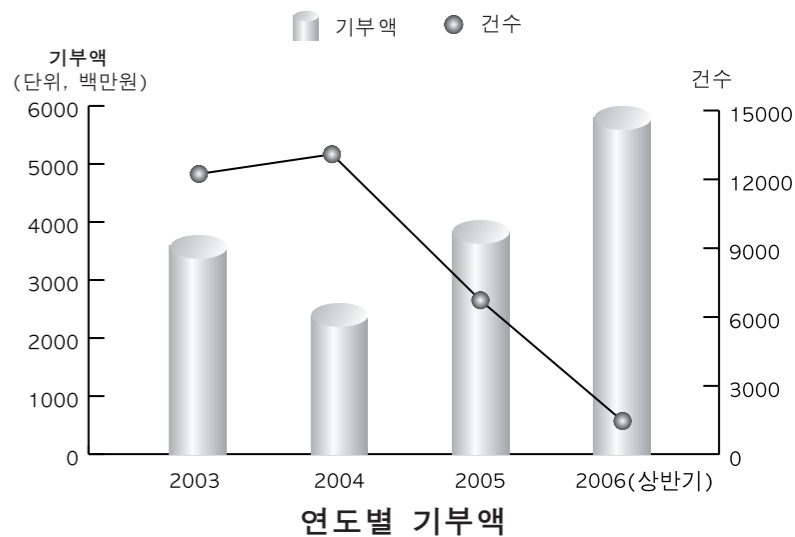
이런 와중에서도 흥 총장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지역 동문회 방문 및 동문기업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접촉을 통해 학교의 비전을 알리고 지원을 받고자 노력했다.

또한 10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로 지난 해 11월에 가졌던 Vision선포식에서 총 100억을 약정해 현재까지 80억원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서강대의 손병두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1년 4개월 동안 동문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60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내는 등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외부자금 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차기 총장후보들 역시 발전기금에 관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대학에서 발전기금의 비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후배사랑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에게 다양한 예우를 갖출 예정이다.

대외협력실 박희상 과장은 "기부자가 교내 교육프로그램을 입학·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내 무료주차와 인명판에 이름을 새겨 중앙도서관에 전시하는 등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대학 발전을 위한 적극적 차원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대학생 재테크, 알면 '약' 모르면 '독'

대박의 꿈을 꾸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임해야

최근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에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라는 책이 1위로 올라와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최근 20대의 재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의 절반 이상인 대학생들이 재테크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재테크를 함으로써 많은 돈을 수중에 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테크 방법 중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해 살펴보자.

투자동아리 RICH의 총무 한정근(사과대1) 군도 "군 입대와 동시에 예금을 했는데 2년 뒤에 보니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이 모이지 않아 주식 재테크에 눈을 돌리게 됐다"며 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하게 됐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이점의 반대편에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다.

주식투자를 할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을 잘 살펴야 한다. 주식을 가장 싼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특정 기간 내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변하는 주가를 무슨 수로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1일 열린 투자동아리 세미나에서 흥익대 투자동아리 HI STOCK 정운재 회장은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해 냈더라도



정확하게 언제 최고가에 도달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언제인지 모르는 최고점을 노리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재테크 관련 공부를 하지 않고 단지 행운이 올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사

람들이 있다. 건국대학교 금융연구회 고문 진덕기(경영4) 군은 "주식은 운이 아닌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며 헛된 기대감을 품지 말 것을 지적했다. 모든 것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듯 주식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크게 손해를 볼 경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 등으로 이유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 진덕기 군은 "주식에서 손해가 나면 자신의 탓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에게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권투선수는 많이 맞을수록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밑바탕을 갖춰 나가게 된다. 주식실패는 당장에는 금전적 손실로 느껴지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 가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양대 투자동아리 F&A Fund 전 회장 정용조 군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가끔 매스컴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은 대학생들이 비친다. 이들의 내면을 모르고 겉모습에만 치우쳐 허황된 꿈을 꾸고 재테크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다. 돈의 흐름인 주식시장에서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해야만 이익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ea@dongguk.edu

대학생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6가지 방법

1. 재테크의 첫걸음은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먼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수. 항상 돈이 흐르는 현장을 포착하고 돈이 흐르는 곳에 뛰어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 30년 후 1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라!

젊고 유행에 관심이 많은 20대들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쉽다. 하지만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사면 자신의 돈관리가 뒷전이 되기 쉽다.

인생의 재무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야 충동적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왜 돈을 벌어야 할까'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3. 나만의 가계부,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성적도 공부해 해야 오르트 재테크도 꾸준한 공부만이 성공의 왕도이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은? 바로 나만의 재무제표인 가계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부를 1년 쓰면 자신의 지출생활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10년간 가계부를 쓰면 경제전문가 수준에 자연스럽게 가까운 가계되어 성공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다.

4. 목돈만들기! 보통예금을 버리고 저축, 보험, 주식보험을 살펴보자!

20대 재테크의 가장 큰 목표는 목돈 만들기! 종자돈이 있어야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70% 이상, 용돈만 제외하고 전부 저축하라"는 전문가의 추천을 가법게 들어서는 안된다.

5. 은행수수료 같은 작은 것부터 아껴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게 급선무이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돈도 아끼지 않는 게 사람 심리다. 일단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하여 은행 수수료와 같은 사소한 지출부터 차곡차곡 아끼는 자세가 중요하다.

6. 20대 최선의 재테크는 자기개발!

무엇보다 20대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쌓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도서구입, 자격증 공부 등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지출을 아끼워하지 말자.

정리=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투자동아리 RICH 회장 박성준(경제3) 군

“관련지식을 쌓는 것도 또하나의 재테크죠”

직접 찾아다니며 정보 수집해야 ... 무리한 투자는 금물



준(경제3) 군.

현재 우리학교 투자동아리 'RICH'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재테크라는 용어가 생소했을 4년 전부터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시도해 왔다. 또한 현재도 타 학교 투자동아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재테크를 시도했던 경험에 대해 말한다면.

= 대학에 입학한 직후인 2003년 적립식 펀드를 시작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적립식 펀드에 관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처음 시도한 결과 25%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아무런 정보수집 없이 시작해 첫 시도에도 100%의 예상치 못하게 많은 수

익을 얻었다. 자만심이 생겨 무리한 주식투자를 한 결과 40%의 손실을 겪었다.

그 뒤로는 투자나 주식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경제신문도 계속 읽어가며 공부를 했고 현재는 적립식 펀드와 청약저축 등 안정적인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를 하고 있다.

- 재테크를 할 때 노하우가 있다면.

= 자신이 직접 증권회사 등 투자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펀드매니저 등 관련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보가 자신의 귀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서적도 많이 읽어 관련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 재테크를 처음 시도하려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들어오는 이익에 재테크를 바로 시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더 먼 곳을 내다보고 회계, 재무관리 및 수학을 접목한 통계학 등과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기초지식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불어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쟁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다.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짐작할 수도 있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생긴다. 이러한 지식들이 하나씩 쌓이면 미래에 더 큰 자산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사이버 뉴 토익 강좌

▶ 접 수 : 11월 27일 ~ 12월 8일
▶ 수 강 료 : 각 2개월 코스, 40,000원 (단, 8번은 20,000원)
▶ 강좌시작 : 06년 12월 11일
▶ 강좌종류 : 8개 과목
1) 김대균의 Tycoon 기초토익 (Step 1)
2)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 (Step 1)
3)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 (Step 2)
4)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 (Step 1)
5)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 (Step 2)
6)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 (Step 1)
7)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 (Step 2)
8) 김대균의 TOEIC 문법&어휘 마침표 (Step 1)

▶ 수강방법 : 접수 후 <http://www.cattoeic.com/eslscat/dgu> 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시작.

▶ 접수문의 : 방문 접수 후 은행 수납 or 이메일 접수 후 은행 수납 (ie@dongguk.edu)
수강료 납부 계좌 : 신한은행 : 140-006-75483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 환불 : 개강 전 100% 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 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 이용안내사이트 : <https://www.cattoeic.com/eslscat/catsample.asp>

▶ 샘플강좌사이트 : ① 김대균의 Tycoon 기초토익(1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asp>
②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asp>
③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asp>
④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asp>
⑤ 김대균의 TOEIC 문법&어휘 마침표(1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asp>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겨울방학 어학 특강

<강의기간 : 2006. 12. 26(화) ~ 1. 12(금) / 3주 / 총 24시간>

▶ 수준별 원어민 영어 강좌 ◀

과목명	강사명	수강요일	수강시간	수강료
초급회화	Conversation 1 Jayne	월/화/목/금	10:00 ~ 12:00	95,000원
	Conversation 1 Roddy	월/화/목/금	13:00 ~ 15:00	
중급회화	Conversation 2 David L.	월/화/목/금	10:00 ~ 12:00	
	Conversation 2 Aaron/Steve M.	월/화/목/금	13:00 ~ 15:00	
고급회화	Conversation 3 Jennifer	월/화/목/금	10:00 ~ 12:00	
	Conversation 3 Michael	월/화/목/금	13:00 ~ 15:00	
인터뷰	Interview & PT Skill Modesto	월/화/목/금	13:00 ~ 15:00	강의실은 추후 공고
Discussion	Debate & Discussion Jayne	월/화/목/금	13:00 ~ 15:00	

◎ 원어민 영어회화 :
▶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 선정
▶ 검증된 실력의 국제 교육원 교수님과 만나는 즐거운 영어 세상.
▶ 수업 후 담당 교사 Comments & feedback 제공

◎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
▶ 취업준비생 및 비즈니스 현장 영어에 관심이 있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 실무 영어 학습을 기반으로 interview, business meeting & presentation 등의 주제 중심 진행
▶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강사의 지도.

◎ Discussion (토론 집중반) :
▶ 최근사 및 다양한 토픽 선정
▶ 영어회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

■ 등록 안내

접수처	동국대학교 해외관 1층 국제 교육원 사무실
기간	접수 및 수강료 납부 기간: 2006. 12. 1 (월) ~ 12. 22 (금)
문의	문의전화: 2260-3880 / 3590 (문의시간: 오전 9:00 ~ 오후 5:00)
접수	1. 방문접수: 신청-은행수납
문의	2. 이메일접수(ie@dongguk.edu) : 이메일(신청강좌, 이름, 학번, 학과, 전화번호표기) - 은행 송금(본인이름) * 수강료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6-754830 (예금주: 국제교육원)

※ 1. 동국대 재학생 및 외부수강생 (대학원생 포함)은 수강료 1만원 추가
2. 환불 - 개강 전 100%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신경림 시인 초청강연

■ 일시 : 12월 6일(수), 오전 11:30
■ 장소 : 다학관세미나실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귀의삼보하옵고, 모교 건학 100주년과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큰 기쁨과 영광을 함께하고자 2006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제우께서는 두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18시
2. 장 소 : 소피텔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
3. 참가회비 : 5만원 (부부동반 환영)
4. 연 락 처 :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공동회장 성광·권오현 합장

‘평화통일의 숲 가꾸기’ 체험기

통일의 숲, 북한에 미래의 희망을 심고 돌아오다

애정의 싹 틔우러 북으로 출발

지난 달 25일 강호덕 교수님과 우리학교 학생들, 송실대 학생, 경실련 단체, 일반인 등이 ‘평화 통일의 숲 가꾸기’ 행사에 다녀왔다. 아침 7시라는 다소 이른 시각이었지만 북으로 간다는 생각에 나를 비롯한 그들의 표정은 매우 밝아있었다.

버스 안에서 남북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행사의 취지, 그리고 일정에 관한 계획을 들었다. 민족 화합운동 연합 대표자의 “이번 행사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를 도모하고 애정을 싹틔우는 화합의 장이므로 소중히 가꾸어 온 남북의 합작품을 지키고 서로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나의 어깨가 무거워 졌다.

버스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경의선 도로 남북 출입국 사무소였다. 통일로를 경유하여 도착한 도라산 역이 있는 이곳은 광화문에서 불과 60km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은 북에서 금지된 통신기와 녹음기 등의 보관과 입력, 출경철자를 담당하는 곳임과 동시에 북한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는 소지품검사를 하는 동안 여성 검사관의 친절함 말투와 “학생 입니까? 어느 학교 다니니까?”하는 사소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진 편견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더 나은 체험을 위한 그들의 노력

북한에서 일정은 크게 개성공단의 견학, 점심식사, 평화통일 숲 가꾸기 행사로 나뉘었다.

12시가 채 되기 전 점심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차려진 규모와 북한 여성 배우들의 공연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반복체



개성공단 개발지역의 동산에서

험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준비한 흔적들이 엿보였다.

점심식사 후 개성공단에 있는 중요한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건물이 완공되어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땅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모습은 흡사 남한이 개발을 한창 진행하던 과거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의미

오후가 돼 행사 일정의 마지막인 ‘평화통일 숲 가꾸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녹화대상지는 개성공단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동산이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까지 이른 북한의 작은 동산은 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험박어 있었다.

나는 나무를 심는 동안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의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산의 녹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리라. 그 의미에 살을 보태어 통일을 향해 준비해야 하는 연결고리의 부분임과 동시에 분단된

두 나라 사이에서 화해와 협력의 위해 마련하는 왕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사 참여자는 2인 또는 3인이 1조가 되어 나무를 심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들 나무 심기에 열심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땀방울로 얼룩은 북한의 그곳이 산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은행나무 묘목으로 메워졌다. 우리는 그곳에 단순한 은행나무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심고 왔음에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남으로 향하는 버스

에 올라탈 수 있었다.

짧았지만 소중한 경험

하루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체험한 행사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희망을 북에 심어놓고 돌아왔으리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진행되어 남북 사이에 신뢰와 정을 쌓는 끈이 많이 연결되었으면 한다.

김지희 (생지대 산림자원4)



개성에 있는 현대아산 빌딩 앞에서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기업 서포터즈로 두마리 토끼를 잡자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업 체험형 프로그램인 서포터즈를 뛰어보자!

기업들은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비롯 서포터즈, 마케터, 모니터 요원 등 각종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서포터즈 활동은 대학 생활 중 대학 학생들과의 인맥 형성, 기업체험, 인사특전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요즘 서포터즈는 과거의 좁은 의미의 서포터즈 개념처럼 단순히 좋아하는 기업이나 문화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기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기업 역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용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영하이스코(www.young.hysco.com) 서포터즈 2기 활동을 시작한 나는 대학생으로서 쉽게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기사를 쓰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매달 현대하이스코 본사에 모여 기획회의를 가진다. 여기서는 기업에서 하는 회의를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 한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생 공간 지원 프로그램인 PLAYs에서 대학생들이 쉽게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같은 전공

을 가진 대학생들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전공 관련 지식 공유, 인맥 형성, 공간지원까지 받으며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입사 특전 및 해외 탐방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다.

취업난이 극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목표기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뿐만 아니라 실무경험과 능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연풍 (공과대 산업공3)



독자 사진첩

지금 이 순간

이제 희열이 체가시지 않은 무대에서 공연 후 기쁨을 한창의 추억으로 남깁니다. - 동아리 O.D.C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학내 쟁점상황 자세히 전해줘야

올해는 참으로 뜻 깊은 한 해다. 그 이유는 2006년이 우리학교가 건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 깊은 해를 맞아 전통이 깊은 동대신문을 읽고 나의 작은 소망을 몇 자 적어본다.

신문의 하단에는 거의 학교 관련 행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단의 일부에 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을 실으면 좋겠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이것을 실으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여론·칼럼 지면에 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부분을 할애해서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내용에 관해서도 몇 가지 적어 볼까 한다. 선거 기간을 맞이해 학생자치기구를 대표해 나온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실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선거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끼리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그외 북한방문과 관련한 기사 등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좋은 기사였고, 일반 학생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취재를 해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신문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동국대 학생들 모두에게 파이팅을 빌어 본다. 김형진 (사과대1)

이야기 동국 100년

다양한 행사와 캠퍼스로의 접근성 개선

18 동국비전 선포와 100주년 기념행사



지난 5월 8일 열린 100주년 기념식

학교는 특성화, 교육·연구 강화, 교육여건 혁신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건학 100주년을 맞은 2006년에는 교내외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렸다. 기념사업은 건학이념 구현, 역사 정립, 건립사업, 학술활동, 기념행사, 홍보 등 총 6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행사는 흥기삼 총장의 북한 보현사 방문 및 김일성대학교의 학술교류의향서 체결, 박영석 동문의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하는 동관부조를 설치,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인 만해 한용운의 미발표 한시

이었다. 또 동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자유롭게 상상하는 창조적 동국인(Creative Thinker), 젊고 도전하는 동국인(Young Challenger), 도덕성과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동국인(Ethical Leader)이다. 이 같은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리

막, 100주년 타임캡슐 봉안, 동국 백년전, 동국대학교 국보전, KBS 열린음악회 등의 다채로운 교내 행사와 ‘2006 총무로 열린 영화축전’, 기념시화전 ‘백년의 만남’, 기념우표 발행 등이 언론계와 불교계 그리고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우리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계기로 ‘캠퍼스 플랜 5대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도시 서울의 중심축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캠퍼스 울타리를 허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20만 평의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캠퍼스 타운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대형 지하주차장, 야외공연시설, 국제교류센터, 디지털 도서관, 산학협력 공학관, 영상대학원 등이 들어서게 되며,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캠퍼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듯 총무로에서부터 남산 국립공원까지 동국타운이 조성되면 우리학교는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서 국제적 수준의 면학 여건과 캠퍼스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보리수 저희들은 ‘바담 풍’ 하면서 아이들은 ‘바람 풍’ 하라고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가 소위 버블세븐 어저고 하는 지역의 집값잡기이다. 학군 조정이나 특목고 신설 등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걸 보면 교육이 부동산 정책의 부속품 정도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다. 국가 백년지계의 지표가 되는 고사하고 집값을 잡는 도구로 쓰이는 현실이고 보면 교육은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마인드맵(mind-map) 형식으로 장래 꿈의 설계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았다.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학생들의 미래 설계도는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구체적으로 10년 후 해외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의 꿈을 제시하기도 했고, 장차 의사가 되어 난치병을 알

고 있는 부모님을 치료해드리겠다는 애절한 소망을 지닌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경제생활과 재테크 분야의 장래 꿈 설계를 ‘땅 사서 10년 묻어두기’, ‘뉴 타운 예정지에 허름한 집 한 채 사두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신청하기’ 등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로또 복권 매주 구입하기’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그들의 꿈 설계도를 보고서 현실감이 있다고 칭찬할 수도 허황된 꿈에 매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잡아함 편영경’에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현명한 말이 있는가 하면 채찍에 맞아 가족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야 달리는 어리석은 말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땅 투기나 로또 당첨에 미래의 희망을 거는 현실이 말의 가족을 찢어 놓기에 충분한 채찍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겠는가.

학생의 배움은 어른을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들의 일상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도대체 어른들은 언제까지 ‘바담 풍’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람 풍’하기를 바랄 것인지.

아직도 채찍이 더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 학주
사범대학부속여고 교보사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금 주 의 식 단	월 (12/4)	부대찌개 (2000) 치즈돈가스 (2000) 해물김치볶음밥 (2200)	육개장 (2000) 제육비빔밥 (2000) 콩나물국밥 (2000)	원장찌개 (3200) 돼먹이불고기 (3800) 자반무조림 (3800)	황태해장국 (2300) 철관오삼불고기 (2900) 떡만두국 (2500)
	화 (12/5)	바지락수제비 (2000) 오삼불고기덮밥 (2200) 산채비빔밥 (2000)	참치김치찌개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200) 라조육 (2000)	원장찌개 (3200) 우거지갈비탕 (3800) 갈치구이 (3800)	어묵매운탕 (2300) 알밥 (2900) 버섯된장찌개 (2500)
	수 (12/6)	육개장 (2000) 미트소스파게티&볶음밥 (2200) 해물김치&바지락순두부 (2200)	쇠고기해장국 (2000) 삼겹살김치덮밥 (2200) 오무라이스 (2000)	원장찌개 (3200) 날치알살밥 (3500) 우갈비찜 (3800)	사골곰국 (2300) 수제돈가스정식 (2900) 김치찌개 (2500)
	목 (12/7)	갈비탕 (2500) 간짜육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헬김치찌개&삼선치구이 (22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짜		



왼쪽부터 인문과학부 장원 성다음(철4), 가작 이예원(국교3), 사회과학부 장원 신기훈(정외4), 가작 전지환(정외3), 자연과학부 장원 조은영(생물4)

인문과학부문 심사평

전체적인 구조의 긴밀성에 심사 초점

심사기준은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하여 긴밀하게 구성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한 문학교육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문학교육에 도입하고 교수학습지도안으로 구체화시킨 점이 독창적이지만, 문학해석의 다양성을 중시하려는 필자의 의도와 달리, 성의 억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는 것과, 프로이드의 이론은 역

사성과 양립할 수 없는데 당시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어 가작으로 선택했다.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간혹 우리말 표현이 어색하고, 그림시의 이론에 편중했다는 단점이 있지만,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필자가 내용을 잘 소화하여 글을 진행시킨다고 판단되어 장원으로 결정했다. 김성환(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성중(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심사작들, 치열한 문제의식 엿보이는 수작

4편 논문 모두 치열한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수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 NGO 간 연대의 가능성 : 한일 간 역사분쟁 사례를 중심으로'는 21세기 동북아공동체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일 간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 NGO 간 연대 활동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고 문제의식을 논문 전반에서 잘 서술한 논문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NGO들 간의 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논문이다.

논문 '남남갈등과 통일 NGO의 역할 : 통일 NGO의 남남갈등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역시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남남갈등 해소 방안을 NGO들의 역할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또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 NGO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논문이다. 그 밖의 나머지 두 논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제한된 선정 범위 때문에 당선작으로 고르지 못했음이 아쉽다. 김용현(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심사평

새로운 유전자의 구조를 밝힌 창의성 돋보여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 인간의 유전자 갯수는 약 3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생쥐의 경우도 인간과 비슷한 수의 유전자가 존재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유전자 중에는 개체의 모든 세포에서 골고루 발현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뇌, 심장, 간, 피부 등의 특정 조직에서만 발현되어 기관의 생체 활동을 조절하게 된다. 분자생물학자들은 과거 유전공학이 태동한 후부터, 조직 특이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사실, 동물 기관의 발생이나, 유전병 등에 작용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며,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은 더욱 긴

편하게 조직 특이적 유전자의 클로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학부 전공과정에서 제공하는 생물정보학 및 분자생물학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유전자의 구조를 밝힌 창의성이 돋보인다. 디지털차별표시 기법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의 여부를, 이미 알려진 유전자의 존재 여부로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결국 생쥐의 뇌조직에 특이한 유전자 2개를 성공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해내었다. 새로이 탐색한 유전자에 대하여, 프러모터 및 단백질 연구 등 분자생물학 연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학술지도에 충분히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선정(이과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제44회 동대 학술상 제21회 동대 문학상

2006학년도 동대학술상 수상자 명단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ategory, Winner Name, Prize Name, Prize Amount. Lists winners f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2006학년도 동대문학상 수상자 명단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ategory, Winner Name, Prize Name, Prize Amount. Lists winners for Literature.



왼쪽부터 시부 가작 이성근(인도철3), 소설부 장원 임세화(문철4), 가작 이갑수(문철3), 희곡·시나리오부 장원 지경화(문철3), 가작 이은보라(국문4)

시부문 심사평

언어를 통한 시적 형상화가 관건

여러 시에서 우위를 가린다는 일은 어쩔 비겁한 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작업의 과정을 두고 본다면 시는 그냥 시일뿐이다. 그렇지만 독자의 뒀을 염두에 둔다면 시적 기교를 다하는 일은 독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응모작들은 대체로 독자들에게는 불친절한 면들이 강했다. 자신의 상상한 의식을 드러내는 일에 성급하게 과욕을 부리다보니 정작 시가 언어의 건축물이라는 기본을 놓치고 있었다. 무엇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욕보다 대상에 대한 세심한 성찰과 그 결과로 빚어지

는 정서에 어울리는 언어를 골라 입히는 형상화의 재주와 기분이 되어야 한다. 시적 성취는 궁극적으로 재치 있고 참신한 언어 감각의 구사 여부에 좌우된다. 어설플 격려보다는 쓸쓸한 질책이 응모자들의 향후 실력 향상에 양한 이 되겠다는 고심으로 장원을 선하지 못한 채 가작 한 편을 고르기로 하였다. '어떤 겨울'은 드러나는 메시지의 불투명성이 아쉽지만 언어적 형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같은 사람의 다른 작품들에 보이는 습작 수준이 고르다는 면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가작으로 추천한다. 최순열(시법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부문 심사평

예년에 비해 진전 ... 어휘력 빈곤은 문제점

올해 동대문학상 소설 부문 응모작은 모두 13편으로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응모작 대부분이 사건을 조작하고 구성하는 솜씨에 있어서나 문장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무척 안정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대학생 특유의 관념과 현학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휘력 빈곤 현상은 이번 소설 응모작들에서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머니가강에서 마리와 상체만 남은 채로 발견된 사건 뒤, 화자는 아버지를 봉양하며 만두를 빚어 판다. 만두가 원래 적벽대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제갈량의 고사를 적절히 활용한 이 작품은, 서두의 만두를 빚는 장면 묘사가 대단히 섬세하고 정확하여 소설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면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틀이 벌어지고, 결말의 엮기적 장면은 총괄적인 해도 공감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섬세하고 정확한 관찰과 묘사력과 감정을 절제된 서술은 습작 훈련이 부족치 않음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당선작으로 뽑았다. 더욱 노력하여 좋은 작가되기를 기대한다. 장영우(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윤재용(본사 주간·시법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희곡·시나리오부문 심사평

장원, 신선한 눈높이와 노련한 재치 엿보여

마지막까지 경합된 작품은 'baby baby baby', '마리아를 위하여', '해녀가 있는 마을' 등 세 편이었다. 'baby baby baby'는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산뜻하고 경쾌하게 풀어내었으나 주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들고 늘어지는 맛이 없어 아쉬웠다. '마리아를 위하여'는 오랜 기간 다지고 단정 흔적이 있어 반가웠다. 플롯이 단아하고 문장의 결도 고왔으나, 역동적일 수 있는

소재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해녀가 있는 마을'은 건조체 드라마의 전형을 띤 작품이었다. 문학성과 관념에 치우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고 극의 발전과 활력이 없어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으나 작가의 신선한 눈높이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노련한 재치가 엿보였다. 이만희(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2007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 및 논술특강

1. 행사내용 : 200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 설명회 및 논술특강

2.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6. 12. 9(토) 14:00 ~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3. 행사일정 : 14:00 ~ 16:00(2시간) 가. 200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설명회 -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이상일 교수(20분) 나. 논술특강(인문계) - 박명호 교수(정치외교학과, 본교 논술 출제위원)(50분) 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대학 지원전략 -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40~50분)

4. 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3 수험생 및 학부모 약 700명

* 행사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 안내

제 1기「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대상자 선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장학내용: 장학금: \$50,000/년 이내 지급함 (최대 3년간), 지원대상 학교: 미국의 분업별 대학원 평가 순위(전공학과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과정, 선발인원: 10명, 지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공 구술시험 포함), 전형 일정: 접수일자: 2006. 12. 11(월) ~ 12. 15(금), 합격자 발표: 2006. 12. 22(금), 면접일자: 2006. 12. 27(수), 최종 선정자 발표: 2007. 1. 12(금), 선발기준: 성적 + 면접, 제출 서류: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예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본교(학부)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CBT(Computer Based TOEFL), GRE 성적표 각 1부, 자기소개서,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2인 이상 추천서 (소정양식), 제한사항: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원 채용시 우대함, 매년/학기별 학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 및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총 유학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박사학위 미 취득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함, 석사 진학 예정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지원함, 유학 중 학교변경 및 유학관련 기타사항은 사인별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입학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제출 및 문의처: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본관 2층), (2260-3927, job@dongguk.edu), 관련 양식 및 세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홈→서울캠퍼스→취업지원→우측 「동국 100주년 파워 엘리트 장학 안내,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세운 공든 탑에 묻어가다

캠퍼스 불청객 '프리라이더' ...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필요



무임승차

'프리라이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익숙한 개념이다.

대다수의 강의는 협동 과제를 통해 여럿이 한 조를 이루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묻어가는 사람을 두고 프리라이더(freerider-무임승차자 :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라고 부른다.

우리학교 총 1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프리라이더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48명 중 60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프리라이더를 눈감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43명 중 64명인 44.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도 프리라이더의 경험이 있거나 친한 친구 간에 팀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무임승차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에 달하는 것을 보면 프리라이더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조별활동에 잘 참여하기 때문에 프리라이더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조별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조원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

김중호(전기공1) 학생은 "20장이 넘는 조별과제를 3명이 해야 했는데, 그 중 1명이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과제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해오지 않아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미문 지능형 프리라이더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평소 조별모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발표나 질의만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한 학생은 "발표만 그럴듯하게 자신이 독차지해 교수님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은근히 많다"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노력없이 받은 A학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협동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리더쉽, 상호의존 조율방식 등의 이점을 배울 수 없어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별 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예철해 연구원은 "조모임 일지에 과제의 진행 및 분배사항을 꼼꼼히 쓰라고 권고해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생들 간의 상호 평가 방법이 있는데 한 학생을 나머지 조원들이 평가해 교수가 그것을 참고로 조원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재섭(건축공학) 교수는 "이 방안을 실제로 도입해 봤지만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상호평가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조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멋진 팀플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학습의 주인공이 되자



유창조
경명대학 경영학과 교수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학생들은 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워 나가는 곳입니다. 즉, 교수는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학문 영역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읽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천적인 감각을 키울 때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권유하고 토론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수업시간은 보다 활기차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학생들의 노력이 없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 방식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시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졸업 후 직장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갖고 모든 방면의 학교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창의성은 노력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학생들은 대학에서 자신이 열정을 갖고 탐구할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방황하고 그에 따라 공부에 그다지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학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열정을 갖고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 있을 때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경영학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성과가 높아짐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대학시절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간의 노력이 미래의 여러분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지금부터 노력합시다.



메아리

허무한디

▲ 지난 해 고려대는 백주년 맞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연극 '당나라 그림자 소유권에 관한 재판'을 공연했다. 이 기념극은 연극무대와 방송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의 예술인들이 뭉쳐서 만든 작품이다. 그동안 고대극회는 개교 60주년부터 10년에 한 번씩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기

념공연을 올려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 부쩍 커진 규모와 화려한 출연진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연세대학교는 창립 120주년 기념 동문합동 오페라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 우리학교 역시 올해 백주년사업의 일환으로 '건학 100주년 기념 연극제'를 구상 중에 있었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와 연극영상학부 동문회의 공동주최로 각각 전체 제작비를 반씩 부담하여 제작하기로 예정했었다.

연극영상학부 동문회에서 약 2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건학100주년기념공연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 연예인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었

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단계에서 무산되어 11월 초에 공식 서신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현재 공연추진위원회는 해체되었다.

▲ 작품 선정이나 연출자, 배우 캐스팅 등은 공연추진위원회 측에서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작품과 연출자까지만 선정된 상태에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학교 측은 만약 공연이 성공리에 치러졌다면 학내에서 약 10일간 공연을 한 뒤 호응이 좋으면 전국투어까지도 구상하고 있던 터였다.

기념공연의 취소는 출연진의 스케줄 등 일정조절의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우리학교 연극영상학부는 훌륭한 동문연예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학교의 간판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위상이 높다.

이번 기념 연극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학교 홍보 등 충분한 대외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문화콘텐츠를 표방하는 연극영상학부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백주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 간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을 텐데 결국 흐지부지되어버려서 안타깝다.

정은미 문화부장
eunmi@dongguk.edu

가을·도서관·100주년 기념 시화전

봄에 못 본 시화전, 가을에는 꼭 본다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을 다시 열립니다. 지난 4월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시화전을 11월 28일(화)부터 12월 6일(수)까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출작 총 120점 중 기존 판매 작품을 제외한 80점 정도를 선보이게 되며, 이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용운, 서정주, 조지훈, 이형기, 신경림, 조정래, 황석영 등 작품

동국문학 1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시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그림은 동문 출신 화가 및 서예가들이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봄, 전체 교직원에게 드린 <100년의 만남-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판매, 50만원과 70만원 두 종류, 선착순

작품 소장자를 원하시는 분에게 판매하며, 판매금 전액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처리됩니다. 봄 전시회 때 삼백만원에서부터 이천만원까지 팔렸던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싼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약 판매는 받지 않고 전시장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1인 2점까지 구매 가능하며, 분납이 가능합니다. 구매 작품은 전시회 종료 후 개별 전달하며, 구매하신 분에게는 각종 시화기념품(도록, 엽서, 손수건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는 높은 가을, 시와 그림과 학교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모든 동국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기간 : 11월 28일(화) ~ 12월 6일(수)
10:00 ~ 16:00(토, 일요일 제외)
개막식 : 11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전시실
판매대상자 : 본교 재직 및 퇴직 교직원, 동문 및 학생과 학부모
작품판매 : 선착순, 1인 2점까지 판매
작품대금 : 전시장 직접 납부 또는 약정서 제출 구매 가능 (발전기금 처리)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
02-2260-3120, 3122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자녀 성격이해를 통한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식 익히기

■ 내용 : 부모자녀 성격검사(MBTI/MMTC검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상황 속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운다.

■ 일시 : 12월 12일(화)/14일(목) 오후3시
12월 19일(화)/21일(목) 오후3시

■ 장소 :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미나실

■ 대상 : 초등학생(4-6학년) 자녀를 둔 20가족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지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중구민과 동국가족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2279-3891/3893

우리 아이 행복한 부자로 키우기 위한 경제특강

강사 :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
"우리아이는 노블레스 카드" 저자

일시 : 12월 9일(토) 오전 11시

장소 :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강

문의 : 2260-3898

아이를 우등생보다 행복한 부자로 키우는 비결!

학교공부만큼 돈 공부도 중요하다. 컴맹보다 더 무서운 돈맹! 소비 괴물이 된 아이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닮는다.

우리 아이 행복한 부자 만들기 대작전!!